

부산 정관 도시철도 신설, 삼척~강릉 철도 고속화, 광명·시흥·목감천 유역 치수사업 타당성 확보

“영동지역 및 지방 신도시 철도 서비스를 통한 지역균형성장 도모, 수도권 산업·인구밀집 지역의 치수안전도 향상” 기대

기획예산처는 2026.2.12.(목)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「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」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(이하 ‘예타’) 결과 등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[예비타당성조사 결과]

금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였다.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.

① **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(1단계) 사업**(국토부, 이하 ‘정관선’)은 부산광역시 정관읍 월평리~정관신도시~좌천역 구간 노면전차를 건설(L=12.8km)하는 사업으로 정관신도시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할 뿐만 아니라, 정관선을 건설하면 ‘동해선’과 ‘부산~양산~울산 광역철도’가 연결되어 부산·울산 등 거점 간 광역 철도망을 확충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(예비타당성조사 결과) 총사업비 4,749억원

② **동해선 삼척~강릉 고속화 사업**(국토부)은 강원도 삼척시~동해시~강릉시에 준고속철도망을 건설(L=45.2km)하는 사업으로, 동해선(부전~제진 475km)중 유일한 저속구간(설계속도 70km/h)을 고속화(250km/h)하여 주요 거점간 이동시간을 단축(삼척~강릉 구간 소요시간 58분→39분)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(예비타당성조사 결과) 총사업비 11,507억원

③**목감천 치수대책(2단계) 사업**(기후부)은 상습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목감천에 홍수조절시설(저류지)을 설치하는 사업으로, 산업·인구밀집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·시흥시, 서울시 구로구 일대의 치수안전도를 향상시켜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(예비타당성조사 결과) 총사업비 4,570억원

마지막으로 임 직무대행은 “지역균형 성장, 국민 안전 등 국가 아젠다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타 등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예산처	책임자	과 장	김완수 (044-214-3310)
	타당성심사과	담당자	사무관	조문경 (keepangel88@korea.kr)
				정재우 (zeus7009@korea.kr)

